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한국정치 바꾸기 위한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정치인들의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눈만 뜨면 서로를 못 죽여 안달이다. 매우 비생산적이다. 상대방이 잘하는 꼴은 전혀 못 보겠다는 것 같다.

이러는 데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엄청나다. 각종 특혜도 많다. 이런 꼴을 조금이라도 덜 보려면 하루빨리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개헌안대로.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소환당하면 국회의원 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청와대발 개헌을 내팽개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아귀다툼하는 이유가 뭘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닐까.

이의 극단적 사례는 백설 공주라는 동화다.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라고. 왕비는 당연히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기서는 왕비마마께서 제일 예쁘십니다. 하지만 백설 공주가 왕비보다 천 배는 더 예쁘답니다.' 라고 대답해 버렸다. 이 대답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때부터 왕비는 공주를 볼 때마다 오징어묵이 튀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주의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다. 거기다 머리칼은 흑단처럼 까맣다. 이러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주를 죽이기 위해 왕비는 뚝이 든 사과를 들고 찾아왔던 것이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무섭다. 한번 발동되면 심장도 다스릴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게

된다. 그야말로 이상매미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각자의 몫이 아닐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 역시 이런 상태가 아닐까.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면서. 그런데 문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하για 국민들도 잘못은 있다. 이런 족속들을 뽑아준 죄 말이다. 각설하고 작금의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정치인들이 하는 작태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뭣인가. 별로 없다. 그런데도 한 야당 총수는 밤낮 미국타령이다. 한 세기는 뒤떨어져 사는 것 같다. 맹방이라는 미국이 그리도 우리의 목을 조이

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미국, 미국이다. 자기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겠는가. 모든 국가가 국기가기주의에 얽매어 활동하고 있었는가. 냉엄한 현실 아닌가. 또한 당연하고.

범위를 좁혀 생각해보자. 혈연 등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가정은 어떤가. 부모형제 간에도 각각의 주관관을 뽐기고 있지 않은가. 범위를 점점 높여서 마을 공동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는, 광역시?도는, 국가사회는 그리고 국제간은 어떻게겠는가.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을 몰아치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결과물인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제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

박역한 친구였던 연암 박지원과 참에 유한준의 다툼으로 비롯된 두 집안의 혈투. 백년이 지난 후 이들의 5대손인 박규수와 유길준이 멋지게 해결해버렸다. 해결점은 별다른 게 아니었다. 대학학 박규수가 항시 정직한 유길준을 불러 칭찬하고 격려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 점을 잘 여겨보길.

社說

불시 소방조사 강화해야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니 관심을 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의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가

연성 의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구조와 위험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과 고려해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은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또 화재원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화재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虛堂習聽

허당집익힐들

虛堂習聽

▷ 뜻 : 빈방에서 소리를 내면 울려서 다 들린다. 즉 착한 말을 하면 천(千)리(里) 밖에서도 응(應)한다.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우리에게 전통시장은 정겹고 그리우며 추억이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 또한 마음이 아파진다. 전통 시장은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출입구와 통로가 좁고 노후된 시설이 많으며,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가판대 주변이나 창고에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전·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 먼지나 주변 적재물로 인해 열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기계적 요인,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도구, 담뱃불 등이 있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기적인 소방교육을 통해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통로가 협소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상인들 스스로가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각 소방관서는 관할에 속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야간에 불시 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출동로 확보와 방해물 제거 요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시장 상인들에 의한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이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 이웃주민과 지역사회가 화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후성 /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집회시위 소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끄러운 집회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은 표정이 답답지 않다. 주택가 주민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보상받을 길은 없다.

많은 군중이 모이는 집회에서 음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한정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인데, 다른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귀를 닫을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지역은 주간 75dB, 65dB로 소음제한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시끄러운 집회는 일반

시민들이나 상인들도 그러려니 하고 참는 입장이었지만 소음에 관한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그에 따른 시민의식도 바뀌었다. 실제 집회현장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면 112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도 집회 시 소음전담팀을 편성하여 모든 집회현장에서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기준초과 소음에 대한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일시보관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집회 소음 평균치는 낮아지고 있다.

내 목소리만 내기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심지어는 북과 팽과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는 것은 존중받지 못할 집회 문화이다. 법적제재에 앞서 법질서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백승진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湖南新聞 (HONAN NEW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용성' (Munhwayongseong)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